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이론자원 탐구: 개념과 문제들

- 강진숙(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화두 중의 하나는 ‘다문화’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다문화 여성과 청소년’ 등의 사회적 담론들은 이주민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했던 배타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의 화두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2003년 이후 농촌 청년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문화’ 개념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담론의 한 축을 이루어 왔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는 교육정책적 문제에 직결된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 이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거 초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주민 교육정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 왔던 ‘다문화’ 담론은 정부의 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다문화미디어교육’이 그러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엑트와 전국에 설립된 미디어센터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엑트의 경우 2007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다문화이해교육 연구학교’인 이태원의 보광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다문화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례에 이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도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과정의 ‘다문화어린이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천안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31에는 전주 ‘영시미’에서 다문화어린이 미디어교육의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평가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 단위의 ‘다문화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 사업들에 대한 보다 성찰적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참여주체와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디어엑트의 경우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을 주 참여자로 한 다양한 미디어교육과정을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미디어센터들의 다문화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역시 산발적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여 활발히 진행해 온 점은 선행 사업들의 성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문화 가정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사회구성원들, 즉 비(非)다문화가정과 분리된 채 운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문화미디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정체성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목표는 비(非)다문화 주체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주의적 관점에 의존하여 고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유대 경험이 부재한 반쪽자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개인적, 사회적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다문화미디어교육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비(非)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실험들을 통해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문제들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자원으로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자 담론,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쟁점들, 그리고 다문화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향후 다문화미디어교육의 목표와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의 흐름

다문화미디어교육 연구는 주로 미디어교육단체와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선, 미디어엑트 미디어교육실의 박혜미(2008)는 ‘이주, 다문화, 미디어교육’이라는 비평글에서 2004년 명동성당에서 투쟁 중이던 이주노동자와 미디어교육을 시작한 이래 참여자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어린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지역 미디어센터의 활동성과들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현재의 다문화 담론이나 다문화교육이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혜적인 차원이나,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미디어교육이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동화주의적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관

점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문화 미디어교육이 단지 이주민이나 국제결혼 가정의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일방적으로 사회화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지양하고 다문화미디어능력을 촉진하는 계기로서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김영순·김선미(2008)는 『다문화교육의 이해』라는 저서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동향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육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와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이론 자원과 사례분석 자료들이 부족한 우리의 연구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미디어교육에 대한 이론자원을 개발하는 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영자(2008)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다문화교육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정체성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그리고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 등 네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의 접근 방식은 소수자로서의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접근과 제한된 참여주체의 설정에서 벗어나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의 다차원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 외에도 소수자 관련 연구서로서 윤수종 외(2005)의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이학사)과 고길섭(2004)의 『어느 소수자의 사유』(문화과학사)를 들 수 있다. 앞의 저서는 우리시대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함의,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장애여성운동의 흐름, 그리고 수형자의 불만과 저항 등 다양한 학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논문들을 엮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성매매여성, 이주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수형자, 병역거부운동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소수자들의 개인적 욕망과 소외 뿐 아니라 소수자 인권운동의 특징과 함의들을 분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고길섭의 저서는 문화, 공간, 공공성 그리고 문화정치적 측면에서 다중적 소수자의 삶과 투쟁에서 발현되는 문화적 의미를 경쾌하고 담대한 필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저서는 특히 필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과 사유들을 전개하면서 다수자의 고정관념과 상식들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도 환기할 필요가 있는 문제의식들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주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주의의 담론지형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위의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소수자, 사회적 소외계층,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미디어교육 등에 관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이론자원을 수집하여 각 연구문제들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자 담론을 연구하기 위해 철학, 미학, 비평이론서들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문화주의의 담론지형 연구를 위해 문화연구와 비관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논문들과 문헌들을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미디어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 현장 미디어교육사례들과 평가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최종적으로 다문화미디어교육의 개념과 문제들을 정립하는데 종합적 논의의 근거들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